참가 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져 즐겁게 옛길을 걷고 있다.

참가학생들이 상원사로 향하는 옛길을 이어주는 섶다리를 건너고 있다. 2007년 옛길을 복원하며 작은 나무들을 엮어 만든 다리다.

"텅 빈 오대산 사고 보니 안타까워"

불교계와 교육계의 고민이 해결되는 자리

강원교육청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으로 지정

"혹시 '혼났다'를 아는 사람? 어떤 경우 '혼났다'는 용어를 쓰나?"

"무엇을 잘못했을 때요."

"혼났다는 혼을 정상적으로 쓰지 않았을 때 혼이 제자리에 잡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우리의 혼일까? 우리의 혼은 바로 우리의 삶,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만들어서 계승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가 어딘지 아는 사람?"

"사고요."

"사고가 뭐지?"

"도서관이요~, 책방이요~."

"사고는 우리 선조들의 삶이 기록된 역사책을 보관하는 곳이야~. 여기는 조선 왕실 족보와 기록 등을 보관하던 곳이야."

"그런데 왜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일제 하에 일본 놈들이 그것을 가져갔기 때문이야. 여기 오니 휑하고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느꼈지? 너희들이 커서 아들 · 딸 등 후세들과 함께 여기에 왔을 때 이곳이 우리 혼을 보관하는 곳이 다시 되도록 노력하자."

오대산 사고(史庫) 관리인을 맡고 있는 설봉 장영철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아이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바로 월정사 여름 산사학교에 참가한 삼척중학교 아이들이다.

8월 16~18일 월정사를 비롯한 상원사, 영감사 등 오대산 일대에서 열린 이번 산사학교는 여름을 맞아 여러 사찰 등에서 열고 있는 산사학교과는 달랐다.

바로 교육청과 불교계 간 여름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의 첫 사례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청소년수련 시범학교로 지정해 마련했기 때문이다. '명상 · 문화 · 환경이 함께하는 산사학교'로 붙여진 이번 산사학교에는 삼척중학교 학생과 선생님 40여 명이 참석했다.

산사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은 문화재 이해, 오대산 사고 탐방, 오대산 옛길 탐방 등 우리의 문화와 환경을 체험하고 발우공양, 108배, 부모은중경 사경 등 불교예절과 효사상 등을 배웠다.

특히 2011년부터 국사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학생들은 한일강제병합 100년과 광복 65주년을 맞아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등을 보관했던 오대산 사고를 둘러보고 역사의 소중함을 느꼈다. 오대산 사고는 월정사가 맡아 관군와 승군이 함께 번을 서는 등 호국불교의 얼이 서려있는 곳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일까. 참가 학생들은 불교문화와 역사 해설에 큰 호응을 보였다.

김형태 학생은 "부모님을 따라 절에 자주 갔지만 산사체험은 처음이다. 사고가 텅 비어 있어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연충만 학생은 "선조들이 산 속에 사고를 만든 것이 외적들이 많이 침입해서 그런 것 같다. 잃어버린 우리의 것을 어서 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동식 삼척중학교 교장은 "학교에 '창의적 재량학습'이 일주일에 1시간씩 진행되는데 명상 등이 진행돼 아이들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금년 산사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문화와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장은 "선생님들도 연찬회 형식으로 이번 산사체험에 동참했는데 사제 간의 신뢰 형성 등 유대관계가 더욱 깊어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젖이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다. 참다운 사람을 만드는 교육과 종교가 추구하는 맥락은 같다"며 불교의 가르침과 교육이 어우러지는 장이 더욱 넓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월정사 측은 문수청소년회가 중심이 되어 성보박물관, 국립공원 해설에 나섰다. 문수청소년회는 현재 강원도 32개 학교 257개 학급의 창의적 재량학습에 인성교육 등 다양한 학습을 지도하고 강사 양성 등에도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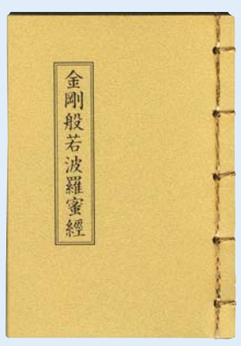
사찰예절교육과 명상 등을 지도한 포교국장 청운 스님은 "각각의 꽃이 멀리서 하나의 장엄을 이루는 화엄세계처럼 이번 산사학교는 불교계와 교육계의 고민이 하나로 모여 해결돼 가는 과정"이라며 "첫 출발로 부족한 점이 많겠으나 서로 보완해 간다면 교육적으로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일정은 다소 빠듯했다. 학생들은 첫째날 입재 이후 이어진 교육과 새벽 3시에 기상해 적멸보궁을 참배하고 옛길 등을 탐방했다. 또 저녁에는 저녁예불과 도전 골든벨과 사경 등이 진행돼 지칠 만도 했지만 아이들은 한데 어우러져 이를 즐겼다.

한혜원 문수청소년회 사무처장은 "많은 일정을 즐겁게 소화하는 학생들에게서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했다. 불교는 한국역사 · 문화와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심리 상담, 심성 계발 등 종교 내부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궁무진한 만큼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며 불교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